

2021 THEME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I = Imaginative Ministry [창의적 사역]
M = Making Disciples [제자 양육]
P = Passionate Worship [열정적 예배]
A = Action for the Gospel [복음의 실천]
C = Community Outreach [이웃 섬김]
T = Training Missionaries [선교사 양성] &
 Transforming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킴]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Fax: 949.854.4018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유아부(2-3세)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유치부(4-5세)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유년부(1-3학년)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초등부(4-6학년)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영어중등부(BYM Jr.)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영어고등부(BYM) / 온라인 예배
9:15AM & 11:30AM
- 한어중고등부(CIM) / 온라인 예배
11:30AM
- 소망부(장애인) / 온라인 예배
9:15AM(청소년) & 11:30AM(어린이)
- BETHEL GRACE CHURCH / 온라인 예배
10:30AM
- 日本語 礼拝 / 온라인 예배
1:30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us.cts.tv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TV 방송 (미주 CGN TV):
TV 채널 31.9 · 화요일/오후 2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0부 예배 | (토) 5:00PM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15AM 3부 예배 | 11:30AM 4부(청년) 예배 | 2:00P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0, 1, 2, 3부/히브리서 13:1-3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태복음 5:13-16

말씀 Message 0,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히브리서 강해(42) 사랑 계속 하기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소금 언약과 등불 언약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0, 1, 2, 3부/형제에 모습 속에, 우리 함께 기도해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0, 1, 2, 3부/내 주의 나라와(찬246/새209장), 믿음 in '21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탐 브래디에게 배우는 리더십

Leadership learned from Tom Brady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얼마 전 미식축구 풋볼 결승전인 수퍼볼을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작년 우승 팀인 캔자스 시티와 플로리다 탬파베이 팀이 격돌하는 흥미진진한 게임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응원하던 뉴잉글랜드 팀에서 탬파베이 팀으로 적을 옮긴 전설적인 쿼터백 탐 브래디가 새 팀을 데리고 결승전까지 간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젊고 재능이 뛰어난, 시즌 성적이 최고였던 캔자스 시티 팀의 쿼터백과 비교되면서 가장 나이 많은 쿼터백으로 수퍼볼을 뛰는 선수가 된 탐 브래디는, 지난 20년간 뉴잉글랜드 팀에서 화려한 진기록을 가지고 있었지만 수명이 다했기에 방출된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늘 응원 하던 팀이 아닌,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고 뛰는 탐 브래디 선수가 짝해 보이 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을 응원했던 탐 브래디를 팬데믹 상황에 진행된 풋볼 시즌의 결승전에서 보게 된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모든 미디어와 전문가의 예상을 뒤엎고, 결과는 탐 브래디의 승리였습니다. 개인적으로 7번째 수퍼볼의 승자가 되었고, 가장 나이 많은 쿼터백으로 우승 한 진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풋볼이 낯선 분들에게는 재미없는 경기이지만, 풋볼은 다른 구기 종목과는 그 경기 패턴이 다릅니다. 축구나 배구는 그야말로 모든 선수가 발휘해야 할 기량의 몫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팀워크입니다. 그런데 풋볼은 그 팀워크에 더하여 사령탑이 직접 필드에서 뛰는 경기로서 쿼터 백이 그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코치들이 계속 작전 명령을 내 리지만, 수시로 변하는 필드의 상황에서 순간적인 판단으로 게임을 운영해 가는 책임은 쿼터백에게 있습니다. 풋볼은 마치 두 나라의 전쟁과 같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하며 이끌고 가는 사령탑이 전쟁 승리의 관건이듯, 풋볼 경기는 그만큼 쿼터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퍼볼 승리의 분석에, 탐 브래디가 어떻게 새 팀에 들어가자마자 팀원들의 신뢰를 얻고, 전쟁에서 군사들이 목숨 걸고 싸우듯이, 모든 선수들이 쿼터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우게 되었는지 가 모두의 관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설적인 기록을 세웠던 이전 뉴잉글 랜드 팀과는 그의 기량과 코치와 환상적인 호흡이 그 원인이었다면 지금 탬 파베이 팀에서는 탁월한 그의 리더십이 새롭게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객관 적으로 쿼터백의 기량은 상대팀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승리 후 인터뷰하는 선수들마다 탐 브래디를 칭찬하며 위대한 선수라고 치켜세우는 것을 보면, 그는 새 팀에서 첫해에 그 리더십을 보이지 않게 구축했고, 결국 그 리더십 이 수퍼볼 우승의 원인이었다는 분석입니다. 풋볼 경기를 보면서 깨달은 리 더십은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각고의 훈련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없이 리 더십에 오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더는 팀원들 모두가 다 같이 최 대의 역량을 내도록 이끌어 주면서 같이 경기를 즐길 수 있게 하는 자입니다.

Not long ago, I enjoyed watching Super Bowl, American football final. It was an exciting game between Super Bowl winner from last year, Kansas City, and Tampa Bay Florida. Legendary quarterback Tom Brady moved from New England team, my team, to Tampa Bay, and led his new team to victory. This became a big news. Tom Brady who is the oldest quarterback to compete in Super Bowl was compared to Kansas City quarterback who is the youngest and talented with best season record. Although Tom Brady led New England team for 20 years with colorful records, there were rumors that his release from the team was due to his age. Seeing him wear a different team uniform from the team I have rooted for all these years felt sad. However, I had great joy watching Tom Brady, who I have rooted for 20 years, in this season's football final under the pandemic situation. The result was that Tom Brady won overturning all media and expert predictions. Personally, he has now won 7 Super Bowl Games and has set a new record for the oldest quarterback to win.

Those who are unfamiliar with the game may find this writing boring. Football has different game pattern than other ball games. You could say soccer and basketball require each player to perform similar amount of work for the team. That is teamwork. However, because football's teamwork requires a command center to run in the field, you could say that the quarterback is the command center of the team. Of course, coaches continuously give strategy commands, but with continuous changes of field situation, the responsibility of making instant judgment of the situation and carrying out the game lies with the quarterback. Football is a lot like a war between two countries. It's important for all soldiers to unite and fight, but the command center to lead the soldiers and assessing their morale is the key to victory. Similarly, a quarterback is that important in a football game. When analyzing this Super Bowl victory, the interest was on how Tom Brady, as a new member of a team, gained trust from his teammates, and like soldiers going to war with their lives on the line, how all the teammates gave their best to fight for the new quarterback. New England, his previous team, where he set legendary records and succeeded due to fantastic teamwork between his skills and coaching. With Tampa Bay team, his leadership has been newly appreciated. Objectively, the opposing team's quarterback had better skills. When players were interviewed after the victory, every one of them praised Tom Brady and called him a great athlete. It has been assessed that with his new team, he has built his leadership behind the scenes. That leadership was the reason for their victory. What I realized watching the football game is that leadership is not doing things well alone. There was definitely training and determination to bring out one's full capacity. Leadership is not possible without that kind of effort. However, a leader is someone who leads a team to do their best together and to enjoy the race together.

코로나 숲을 뚫고 가는 로드맵

토요 0부,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히브리서 강해

주일설교시리즈

제 42 편

사랑 계속 하기
(히 13:1-3)

1. 이 만화를 보고 동감하는 것이 있습니까?

2. 형제 사랑을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할 것을 명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1절, 살전 4:9-10, 참고/요한 칼빈/요 13:34-35)



적용하기



3.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는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먼저 주신 메시지입니다. 교회 지체들 사랑을 계속하는 지혜를 나누어 봅시다.(고전 13:4)

1) _____ (갈 5:19-26)

2) _____ (빌 2:3-4)

4. 손 대접이 초대교회에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게 된 이유를 설명해 보면서 우리의 손 대접 수준을 반성해 봅시다. (2절, 참고/ 요일 3:14, 마 25:25-27, 40, 딤후 3:2, 딤후 1:8, 벰전 4:9)

5. 본문에 '갇힌 자'는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간 자라기보단, 신앙의 핍박으로 감옥에 갇힌 자를 의미합니다.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특히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3절, 참고/ 히 10:32-34)

■ 적용찬양: 형제에 모습 속에, 우리 함께 기도해

신년인사

찬양팀, 오케스트라

교회를 교회 되게



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타국 생활이었지만 유달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2020년이 지나가고 어느덧 2021년 2월도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계획이 무산되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에 맞닥뜨리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 앞에 더욱 낮아져야 하는 저를 발견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 근심, 걱정으로 보내는 2021년이 아닌 복음을 살아내는, 자아는 낮아지고 신앙의 고도는 높아지는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김동욱(베델워십)



언제까지나 영원할 것만 같았던 성가대의 찬양이 너무도 그리워질 때쯤 주님께서 허락하신 험시바 찬양은 2021년 저에게 예비해 주신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많이 부족하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찬양을 준비하는 내내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먼저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맡겨주신 달란트만큼 찾으시는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열매 맺어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김선민 집사(험시바워십)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코로나로 인해 제한된 일상을 살아간 지 어느덧 일년이 되어가네요. 다들 평안하신지요.

급작스럽게 삶의 모든 영역이 송두리째 뒤바뀌

었던 작년 3월 말을 기억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답답하고 우울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새로운 일상에 각자의 모습으로 잘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베델워십팀의 일원으로 매주 현장에서 예배를 섬기며 교회의 변화들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배의 형식은 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의 처소에서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루속히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그 날도 기대해 봅니다.

김주현 집사(베델워십)



작년 한 해 동안 악기로 찬양을 드려 오다 갑작스럽게 텅 빈 예배당을 봅니다. 그럼에도 찬양할 수 있음에, 또 연주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후 본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인원이 100명으로 허락되었고, 여전히 적은 인원이지만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없는 감사로 눈시울이 붉어지며 연주했던 2020년이었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며 베델 성도 여러분들과 모두 다 같이 본당에 모여 찬양을 올려드릴 그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미 집사(오케스트라)



섬기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매주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의 삶에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심이 주님의 은혜였

습니다. 빈 예배당을 보면 아쉬움과 허전한 마음이 들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임을 믿고, 2021년 다시 함께 모여 시온 산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날이 곧 오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임정연 집사(베델워십)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는 다사다난함 중에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며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연약한 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조성현 전도사(험시바워십)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팬데믹으로 하루아침에 예배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 버린 지금...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나 돌아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험시바 찬양을 섬기게 된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모양은 바뀐 예배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과 마음은 그 어느 때 못지않게 진실해지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온 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께 동일한 은혜가 임하도록 돕고 섬기는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님이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예배의 자리지만, 겸손함과 기쁨으로 섬기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홍문령 집사(험시바워십)

신년인사
영상뉴스 사역

예배를 예배 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베델교회 출석과 함께 시작된 목사님 설교 테이프 (CD) 녹음을 시작한 지 벌써 22년이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믿음의 뿌리를 내릴 즈음이라 별다른 생각 없이 했던 작은 섬김이었지만 힘든 고비마다 친히 제 손 잡아 잘 넘겨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제는 목소리도 갈라지고 문장 한 줄 읽기도 숨이 차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섬김의 시간이고 사명이라 여기며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의 삶을 살면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에 있을 때, 물이 턱밑까지 차 오른 난파선 속과도 같은 힘든 시간을 경험하며, 고통 가운데 차라리 데려가 달라는 기도가 나올 만큼의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염려와 불안이라는 두껍고 무거운 죄의 딱지를 덮고 살았었지만, 이 모든 훈련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한 거름이었고 제 믿음 밭에는 그만큼의 거름이 꼭 필요했음을 깨닫게 되어 그 시간이 감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열새와 매 주일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흠뻑 맞으며 거친 돌쪼발에서 고운 입자의 비옥한 옥토가 되기를 날마다 받은 은혜 안에서 적극적으로 삶에 적용하려 합니다.

이동우 권사(아나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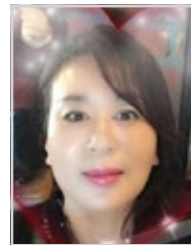


옛 성전 방송실 작은 부스에 앉아 마이크를 잡았던 첫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주일 뉴스가 아닌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 시작 글이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로 전파되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의 밝은 불빛이었습니다. 매주 힘 있는 말씀에 마음이 녹고 새로운 희망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기적을 담아내는 소중한 귀한 사역이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 사역에 목

소리로 섬길 수 있어 저 자신도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원고 말씀에 힘을 실어 꼭꼭 눌러 담았던 옛된 목소리는 이십 년 지나 중저음으로 바뀌고 기쁨기도 빠졌지만, 더욱 견고하고 더 편안하게 마이크 밖으로 전달되기를 애써봅니다. 단지 원고를 읽는 것이 아닌, 전달하는 목소리에 기도가 있고 힘이 있는 메시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베델식구에게, 또 베델을 기억하는 모든 분에게, 그리고 어디선가 실낱같은 소망의 끈을 기다리고 계실 분에게 전하는 메신저의 소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승연 권사(아나운서)



하나님의 계획은 작은 역할이라 할지라도 쓰임 받을 곳은 어디에든 있기에 목소리를 통해 20여 년 가까이 섬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베델 뉴스는 광고가 정해지면 아나운서들이 한 달에 한 번 돌아가며 토요일 오전 방송실 부스에서 녹음을 진행합니다. 미국 전역과 세계 각국으로 보내지는 CD녹음과 뉴스 광고를 녹음하게 되는데 "권사님! 녹음할 준비 됐습니다. 오세요" 하는 전도사님의 연락에 언제나 어김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자체가 은혜이며, 이제는 부족함을 많이 느끼지만, 사명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민 생활 힘든 과정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고비 고비 넘을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옆에 붙여 주셔서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심은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코비드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소중한 것의 고마움도 깊이 깨닫고, 교회 뜰에서 들려오는 성도님들의 웃음소리도, 본당에서 들려오는 예배와 베델 성가대 찬양과 기도 소리도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올해는 참 예배의 모습들이 다시 세워지고 저에게 주신 은사를 주님의 기쁨이 되어 하

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길 바라며,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최경희 권사(아나운서)



2020년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해로써 그중 하나는 베델 미디어팀에서 섬기게 된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에서는 영상으로 주일 말씀을 듣고 모든 예배를 드리

게 되어 미디어가 중요해졌으며 미디어팀을 섬기게 되면서 새삼 깨달은 것은 예배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의 손길 하나하나를 보살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을 열새와 함께 시작하며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말씀이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이었습니다. 항상 저 스스로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미디어팀에서 섬기면서도 예배까지 섬기도록 하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또한 미디어팀원들과 함께하기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미디어팀이 2021년에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기쁘게 섬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한 도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Iris Jang(미디어팀 Staff)



베델사역

45주년 편찬 사역

어제의 축복, 내일의 사명



교회 설립 45주년을 맞은 2021년 올해, 지난 45년간 베델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겨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베델교회가 시작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 홈리스 사역의 여러 사역팀과 베델 동산, 부부 동산 등의 영성 사역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고 발전되었는지 또한, 이를 통해 베델인들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청년공동체 예배와 영어 교회 EM 그리고 CIM, BYM 등 교회학교의 시작과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미 의료선교와 베델의 선교는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지 등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편찬 사역팀을 맡게 되었던 작년에는 팬데믹으로 이 사역이 출발하지 못했으나 올해 들어 좀 미팅을 통해 편찬위원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협력하면서 베델의 과거와 역사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소중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절하게 다가오는 이때, 우리에게 참으로 뜻깊고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에 교회 역사 편찬 사역을 맡았으나 너무나 방대한 작업에 처음에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청장로님과 연구호 장로님, 박상곤 장로님과 윤주원 장로님, 김해영 권사님 그리고 정광묵 집사님 등 여러 분들이 팀에 합류하시면서 책의

목차를 정하고, QR Code를 통한 화보 및 간증문을 웹에 실는 등 약 500페이지 분량의 책자 만들기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 교회의 뿌리를 찾는 이 뜻깊은 사역은, 과거를 돌아보고 기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와 미래를 향한 우리의 꿈에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 편찬 위원회가 여러분께 자료와 도움의 글을 요청드릴 때 함께 베델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마음으로 기꺼이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곽태일 장로(베델 45주년 역사 편찬위)

지난 45년의 발자취를 더듬는 이 역사 편찬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껏 얼마나 우리 베델교회를 축복하셨는지, 앞으로도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

면서 새삼 감사의 마음과 감격을 느낍니다. 격변의 시대를 지나며 이민교회로서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와 21세기를 넘어 앞으로 50년, 100년 지속될 성령의 역사가 베델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귀중한 역사기록을 위하여 혹 소장하고 계시거나 나누고 싶은 산 증언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써가는 베델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 청 장로(베델 45주년 역사 편찬위)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정승락 목사
 믿음 목장/예배/목회지원: 김형균 목사
 소망 목장/선교: 주성필 목사
 사랑 목장/훈련/베델뉴스: 이충경 목사
 은혜 목장/전도/이웃사랑: 김홍식 목사
 화평 목장/셀/기도: 박경철 목사
 베델위십: 김섭리 목사
 새가족/경조: 한순교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 손용주 목사
 예삼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삼채플(청년): 서찬석 목사
 예삼채플(청년):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육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교회학교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초등부: 김은정(Jamie) 전도사
 유치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유아부: 정가영(April)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해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성가대 및 찬양팀◎

지휘자: 박정영, 차은하, 이사무엘
 오케스트라: 박정영
 피아노: 신현진, 지지영, 한현미, 이혜경
 오르간: 이정은, 이혜경, 박정연
 솔리스트: 최정원, 백동휘
 밴드디렉터: 정봉화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아기학교: 이제나(Jenna) 전도사
 영아부: 윤희준 간사
 유년부: 김재은 간사, 장지혜 간사
 한어중고등부: 김소영 간사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안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이정희, 장석영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아침 영상
'봄' 특별 이벤트

지역광고

한국학교 봄학기
성인반 모집

매일 아침 코로나로 인해 지친 우리를 찾아와 위로해주는
 은혜로운 말씀인 '아침 영상' 시간에, 성도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시는 3월 이벤트가 열립니다.

주제는 "봄"입니다. 힘든 시기에도 희망과 함께 다가오는
 봄의 놀라운 생명력을 느끼며, 성도님의 카메라로 직접
 찍으신 새싹, 아름다운 꽃이나 정원을 담은 사진이나 영
 상을 보내주십시오. 그 한 장의 사진이 '아침영상 메시지'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김한요 목사님의 뒤 배경화면으
 로 장식됩니다.

〈촬영 요령〉

- 셀폰을 옆으로 눕혀(landscape mode) 찍어야 합니다.
- 흔들리지 않게 초점을 잘 맞추셔서 사진을 찍어보세요.
 (셀폰에서는 원하시는 피사체를 스크린에서 한번 터치
 하시면, 초점을 자동으로 맞춰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 영상을 찍을 경우, 삼각대 등에 고정하여 움직임 없이
 찍어야 합니다.

성도님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채택된 사진과 영상은
 아침 영상 메시지 시간을 빛내고, 많은 분과 함께 희망을
 나누는 귀한 배경이 될 것입니다.

▶모집기간: 2월 15일(월)-2월 28일(주일)

▶참여방법: 4K 화질의 원본 파일 사진이나 8분 분량의
 배경 화면 동영상상을 bethel@bk.org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의: 김주홍 집사 (213)880-1022
 김형균 목사 (213)359-6000

베델 한국학교가 성인을 위한 봄학기 한국어반을 온라인
 으로 시작합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 데 관심
 이 있으신 분이나 기본 한국어 능력을 향상하고 싶으신
 분을 위한 성인반은 읽기와 쓰기를 비롯한 실생활에 꼭
 필요한 회화 중심으로 구성되며,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
 로 배우고 연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K-pop, 드라마, 영화, 음식, 역사와 문학 등 여러
 분야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폭넓은 지식을 배
 우는 특별한 시간도 있습니다.

학습 단계로는 입문반, 초급반, 중급반으로 구성되며, 입
 문반은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 및 간단한 문장을 배우
 고 말하기 연습을 합니다. 초급반과 중급반은 다양한 문
 형을 익혀서 실생활에 적용하는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10주 동안 운영될 수요일과 토요일에 고등학생과 대학
 생의 많은 등록을 기대하며, bks.bkc.org를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 기간/ 시간:

· 수요일: 3월 10일- 5월 12일(10주)/ 오후 7시-9시

· 토요일: 3월 6일- 5월 15일(10주)/
 오후 1시 30분-3시 30분

▶ 대상: 9학년 이상의 성인

▶ 등록기간 마감: 3월 5일(금)

▶ 등록비: \$190

▶ 문의: 이석희 장로 (949)697-7606

최문정 권사 (949)836-7687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I 손승욱,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루마니아 I 서형철(서정희) 조지아 I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I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과테말라 실버 I 유한성(유영옥) 기니비사우 I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I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I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I 허익현(김영중) 몽골 I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I 성결(강선) 온두라스 I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I 박민수(이순영) 일본 I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I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I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I 황광인(황영숙) 태국 I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I 김송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I 루진, 온세상, 이희숙, 차은경, 김예평(길진영)

*선교기관 I 나눔선교회, 네이비스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리아 신학교, 한미가정상담소, GP미주본부, Good News Spreaders(GNS), JAMA,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I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I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온라인 및 실내의 현장예배 안내

베델교회는 성도님들과 지역 사회의 보호를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가운데 제한된 숫자 내에서 현장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가오는 3월 7일(주일)부터 주일 1, 2부 예배를 실내에서 현장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웹사이트와 카톡채널 공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예배 신청은 매주 화요일 새벽 5시 30분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checkin.bkc.org).

① 현장예배 신청: 토요 0부 예배(실외 온 가족 예배)

② 현장예배 신청 전 자가 점검을 해주세요!

- 최근 14일 이내 확진자와 직간접으로 접촉하신 분
 - 발열 37.5 °C/ 99.5 °F 이상, 기침, 호흡 곤란 등 유사 증상이 있는 분
 - 위 조건에 있는 분의 동거가족인 경우
-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길 바랍니다.

◆ 수요일특별기회: 선교 다큐 "불(Fire)"

수요일선교다큐시리즈 "불(Fire)"에서는 설교자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터키와 이슬람권 6개국(아프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 아르메니아) 선교현장의 복음 전도자, 교회 개척자, 현지교회 목회자, 선교사들의 간증과 사역 그리고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성령의 불의 역사를 보실 수 있는 선교 다큐 영상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4편이 방영됩니다.

① 설교: 롬 10:13-15 순종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선교 (주성필 목사)

② 다큐 4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불(교회 개척 운동)

시청 방법: 수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 카톡채널/베델교회 유튜브 채널

(선교 보안 관계로 두 차례 실시간으로만 방영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아침영상 특별 이벤트

김한요 목사님과 함께 하는 아침영상 메시지에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엮습니다. '봄'을 주제로 직접 촬영한 여러분의 정원 또는 함께 나누고 싶은 작품(사진, 영상)을 보내주세요. 선정된 작품은 3월의 아침영상에서 배경화면으로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7면을 참조해 주세요.

문의: 김주홍 집사 (213)880-1022

◆ 베델 BAM 훈련 모집

베델 BAM 훈련은 비즈니스 문화와 활동으로 가득한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를 함께 배우고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학기는 1단계(BAM 기초 과정)와 2단계(리더를 위한 북클럽 과정)로 진행되며, 팬데믹으로 인해 12주 동안 진도에 맞춰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정해진 시간에 Zoom으로 소그룹 모임 활동을 갖습니다. 훈련 등록은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3월 4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문의: 박지학 집사 (217)390-4107

◆ 교회학교 3월 크래프트 패키지 픽업

3월 한 달간 주일 예배 후 사용할 크래프트 준비물들을 교회학교에서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담당 전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3월 6일(토) 오전 10시-정오 12시, 교회 주차장

◆ 베트남 선교(온라인) 팀원 모집

온라인으로 선교 훈련도 받고, 선교지에 선교영상편지도 보내고, Zoom 미팅을 통해 선교사님과 만남의 시간도 갖고, 토요 헬시바 기도회에서 선교영상보고도 하는 등 10주 운영플랜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선교에 팀원을 모집합니다.

기간: 2월 21일(주일)-5월 1일(토)

문의: 정재홍 집사 (248)202-0777

◆ CIM Park Gathering!

한여 종고등부에서 야외 공원에서 만남을 가집니다. 3-4월호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책 픽업과 새롭게 편성된 나눔 그룹 선생님과 만남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Drive thru pick up도 가능). 참석하는 모든 학생을 위해 간식과 재미있는 친교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월 27일(토),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

장소: Bella Vista Park (36 Rosenblum, Irvine, CA 92602)

문의: 김도석 집사 (714)401-0532

◆ 교회학교: "To Be Like Jesus" 성경 속으로 GOGO!

더 깊이 말씀을 공부하기 원하는 초등부 학생들과 Jamie 전도사가 "To be like Jesus" 교재로 Zoom을 통해 학년별로 모입니다. 코로나로 영적으로 무너지기 쉬운 시기에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에서 픽업하시면 됩니다.

모임 시간 (Zoom): 4학년: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5학년: 매주 주일 오후 5시

6학년: 매주 주일 오후 4시

준비물: "To be like Jesus" 교재

문의: Jamie Kim 전도사 (714)822-7552

◆ 한국학교 불학기 성인반(온라인) 모집

베델한국학교가 성인을 위한 불학기 한국어 반을 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7면을 참고해 주세요.

등록 방법: 베델한국학교 홈페이지 bks.bkc.org

문의: 최문정 권사 (949)836-7687

◆ 축하해주세요

변준호 장로/변미진 권사의 딸 변은아 자매와 홍민우 형제의 결혼식이 2월 27일(토)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습니다.

◆ 위로해주세요

- 故 정형옥 권사님(송광현 집사의 모친, 송영실 권사의 시모)께서 2월 17일(수)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김동준 장로님(김태훈 집사의 부친, 김미진 집사의 시부)께서 2월 18일(목)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 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 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유미 권사, 김지연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Keep On Loving Each Other (Hebrews 13:1-3)

1. Have you ever felt the same way as depicted by this cartoon?



Apply to Life



2. Brotherly love is not something that is a one-time act, but instead, it is something that continues on. What is the evidence of this? (v.1, 1 Thess 4:9-10, Ref: John Calvin, John 13:34-35)

3. Continuing in brotherly love is one of the first messages given to the church community. As members of the church, share your ideas on ways to continue the brotherly love. (1 Cor 13:4)

4. Discuss the reasons that hospitality became an important virtue for the early church, and let's reflect on our own level of hospitality. (v.2, Ref: 1 John 3:14, Matt 25:25-27, 40, 1 Tim 3:2, Titus 1:8, 1 Peter 4:9)

5. In today's verse, "those in prison" refers not to those who committed a crime but those who have been prosecuted for their faith. Let's pray for the believers who are prosecuted for their faith. Especially, let's pray for the believers in North Korea. (v. 3, Ref: Heb 10:32-34)